

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외교 국방 북한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중앙일보] 입력 2020.06.10 05:00 수정 2020.06.10 12:21



한영익 기자 박해리 기자 김기정 기자

272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후신) 논란으로 진보 진영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업비·홍보비·장학금 등 명목
진보진영 단체끼리 자금 공유
민언련, 월 수천만원 지급처 안적어
"관행이지만 회계 검증 불가능"

현 정부서 늘어난 국가보조금
진보 진영 유입된 뒤 돌고 돌아
진중권 "운동권블록 생존력 비결"

정의연은 내부 소식지 디자인을
윤미향(전 정의연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회사
(수원시민신문)에 발주했고,
정의연이 관련된 '김복동 장학금'의
상당액은 진보계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가 받게끔 했다.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시민단체가 아니라 일감연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인 '김복동의 희망'은 이미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김복동의 희망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국내사업)'를 보면 1억3204만원의 총 지출 가운데 상당액이 진보계열 단체나 인사들에게 지급됐다. 1억원의 장학금은 대부분 정의연 이사와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됐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1월 별세한 뒤엔 아예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로 한정된 장학금을 추가로 만들었다. "김 할머니가 평소에도 쌍용차 노동자들, 사드 반대 시민 등 사회구조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게

스트리덱스 Stride x Single-Step Acn	홀섬 스웨트너 Wh olesome 오가닉	유로피언 쉘, LLC European Soaps
₩8,038	₩12,940	₩20,579
구매하기	구매하기	구매하기

iHerb

추천기사



단독 김여정 지시에 조금했다
폭약 퍼부는 북한 '희한한 폭파'

단독 간호조무사, 마취 환자 성추행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또 터졌다

"檢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검찰과 또 충돌

설훈 "윤석열 같은 檢총장 처음
내가 윤총장이면 벌써 그만뒀다"

"文 퇴임 연설 내가 맡았으면..."
또 다시 여권 신경 끄는 진중권

통일부, 대남전단 살포 예고 지적에
北 "무슨 낯짝, 뼈라북탄 보복할 것"

박사 학위 받지 못해 대학서 제적
'천재소년' 송유근, 항소심도 졌다

車 부품업체 '셋다운' 막는다
정부, 협력업체에 5조원 대출

주민들은 대한항공 편 들었다
"송현동 그 땅 공원화 반대"

日 뒷북 코로나앱, 위치추적도 안돼
실효성 의문 '제2 아베 마스크' 되나

불탄 "북미 비핵화 韓 창조물
트럼프, 김정은에게 낚였다"

러폭격기 美ADIZ 진입에 맞대응
美폭격기도 보란듯 러국경 비행

트럼프 "中, 경쟁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트려"...EU도 공세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올스름
수업을 "저이 무대는 계속됩니다"



인생이 참..
외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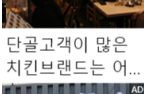
자세히보기



단골고객이 많은
치킨브랜드는 어...



단골고객이 많은
치킨브랜드는 어...



단골고객이 많은
치킨브랜드는 어...



전국 매장 확장,
때론버는 창업 ...

정의연 해명이다. 나머지 사업비도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대사업(200만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홍보사업(500만원) 등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연이 NL 운동권의 물주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동 조직들이 이런 경제블록, 이것이 그들의 집요한 생존력의 비결일지 모른다”며 “적어도 활동가들이 생계 때문에 운동을 떠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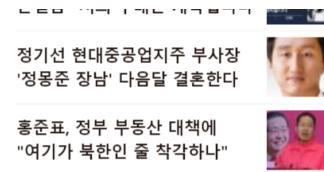
시민단체 실상은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른 시민단체 역시 국세청 공시를 보면 진영 내 자본 재유입의 흔적이 나타났다. '전태일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를 보면 '대표 지급처' 상당수가 같은 진영 내 단체나 업체였다. 지난해 7월에는 노동자 지원 명목으로 이주노동희망센터(외 40건) 등에 4124만원, 11월에는 전태일 추도식을 위해 부산 지하철노조(외 43건) 등에 4085만원을 지급한 거로 돼 있다. 6월 50주기 사업을 위해서는 명필름(외 39건) 등에 9047만원을 줬다고 신고했다. 4월 어울림한마당 사업 역시 지역 비영리민간단체(NGO)가 운영하는 도시락업체(외 45건) 등에 3319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도시락업체는 4·15 총선 직전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경기도 거리 곳곳에 걸고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

우회적 형태도 있었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에 2차례 비용을 지출했다. 6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96건 9047만원', 12월에는 '일상의실천 외 102건 1억5100만원'을 지급한 거로 돼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작품을 전시했다.



많이 본 기사

- 1 [단독] 김영정 지시에 급했다...폭악
- 2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3 또 여권 신경 굶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4 "북은 핵 밀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5 설훈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6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7 대구 부시장직 제안받은 典 홍의락 "도망길
- 8 [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출
- 9 총사덕 "비자금 수사 말라" YS 설득...97년 DJ
- 10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AD] 2020년 '이 종목' 사서 물어봐라 30배...
[AD] 주식투자도 손실없는 '고령수익'이 가능...

Innovation Lab



미래도시가 필요로 하는
Posted by 포스코

Branded Content



교육식별정보 안전조...



경부고속도로 50주년 ...

포토이슈



북면 쓴 멕시코 프로레슬러들, 링 대신 거리로...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여권 신경 굶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2 설훈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3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4 "사실상 주거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6 "북은 핵 밀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미회담 중
- 8 "유럽보다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통일장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영정 지시에 급했다...폭악 퍼부는



중앙일보 기자들의 팟캐스트 공간 J팟

‘정치하는 엄마들’은 시위용품 전문 판매 업체 ‘연대와전진’을 대표지급처로 기재했다. ‘연대와전진’은 금속노조 조끼, 민중가요 음반, 장기투쟁용 얼굴 가리개, 깃발, 깃대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2007년 문을 열었다. 당시 진보 언론에서 “수익금 전액을 장기투쟁사업장 노조 조합원들의 생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장기투쟁 생계지원단’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민주노총·전농·전태일재단·이주노동희망센터 등의 배너광고가 걸려있다.

지급처도 불투명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2019-01	대복지원 및 운영	1		94,339,566
2019-02	대복지원 및 운영	1		136,876,695
2019-03	대복지원 및 운영	1		74,208,067
2019-04	대복지원 및 운영	1		87,039,945
2019-05	대복지원 및 운영	1		76,473,745
2019-06	대복지원 및 운영	1		76,233,296
2019-07	대복지원 및 운영	1		143,012,811
2019-08	대복지원 및 운영	1		118,083,717
2019-09	대복지원 및 운영	1		77,686,728
2019-10	대복지원 및 운영	1		82,936,957
2019-11	대복지원 및 운영	1		87,984,809
2019-12	대복지원 및 운영	1		147,549,561

시민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가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 지급처 기재가 되지 않았다.
[사진 국세청]

더 근본적인 문제는 회계자료 부실이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상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을 회계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 공시에는 대표지급처를 아예 한 곳도 적지 않은 곳도 많았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지난해 국세청에 매달 8000만원 ~1억47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급처는 한 곳도 적지 않고, 지급목적도 ‘대복지원 및 운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썼다. 1월 지급내역을 보면 ‘대복지원 및 운영 1건 9433만원’이라고 신고한 식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월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쓰면서 지급처 상호는 한 건도 기재하지 않았다. 김복동의 희망에서 연대사업 명목으로 200만원 받은 것으로 돼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마찬가지였다. 1월 지출 내역을 보면 ‘목적사업비 외 22건 4182만원’으로만 기재했다.

행안부 "국가정책 상승 사업 우선 지원"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국가보조금도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정의연이다. 정의연은 2016년 1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후 1억5000만원(2017년)→4억3000만원(2018년)→7억4708만원(2019년)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지원사업 수혜 단체를 선정할 때 “국가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스타기자

황진이도 울고 갈 미모, '기생꽃'



北, 41년전 소련 뒤흔들었다...美도 눈뜨고 당한 '탈치산 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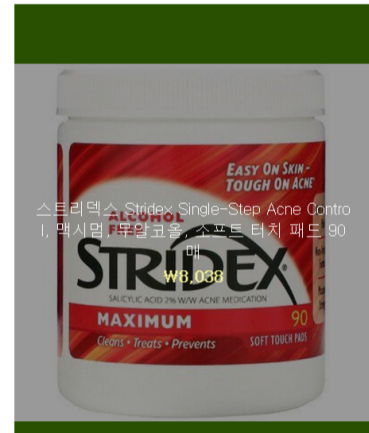
은마 '6.17 쇼크'...328가구는 새 아파트 못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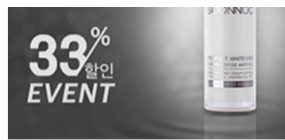
친구 차 탔더니 이렇게 있던데?
나만 몰랐어?



iHerb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행안부에서 공고한
것만 72억원(225개 사업)으로 사업당
평균 3200만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단체인 '블루유니온'은
2014년부터 매년 3000만원 이상 국고 보조를 받았지만 2018년 공모에서
탈락했다. 반면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끄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 등 사업에 지난해(3900만원)와 올해(3400만원)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행안위 간사를 지낸 이채익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보조금 지급 시민단체가 진보 성향으로 절반 이상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박해라·김기정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역류성식도염, 가슴통증" 원인 밝혀..간단치료?
여의사曰, "남성 비뇨기와 절대 가지마세요"
로또 1등 113명이나,추첨방송 논란 3가지
30일만 일해도 "1,000만원" 버는 "정부자격증"?
"남성수술" 1시간이면 가능? 비용은?
"아토피", 병원가지마라? 원인 알고보니.. "충격"



힘이 좋아진 남성! 대체 뭘 먹나 봤더니...충격!

중년남성의 잘못된 고민해결! 그 품격을 세운 "리얼맨"이 남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김재철(56세)씨는.. 더보기▶

여행지, 예쁜 우리말을 찾아주세요!

이벤트 참여하고 휘닉스파크·영화관 가자



😊 108

😞 1576



온라인 구독신청 | 지면 구독신청

#경제 #문제인 #세월호 #경제블록 #생존비결 #진보계열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
#운동권 경제블록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진중권 #정의연 #운동권 #보조금 #회계 #김경을
#투명성 #진영논리 #시민단체 #진보 #보수 #정권 #교체 #김복동 #장학금 #NL #NGO #전태일
#부산지하철노조 #이주노동희망센터 #여성민우회 #금속노조 #조끼 #민중가요 #깃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부실회계 #여성단체연합

관련 태그 기사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 일감	 진중권 "여성단체 특하면 운동, 윤미향 한패...출구 안	 정의연 논란 계기로 시민단체 투명성 점검하는
--	--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by Dable



 스트리덱스 Stride X Single-Step Acn	 Wholesome Organic 스트레스 오가닉	 유폴피언 솅, LLC European Soaps
₩8,038	₩12,940	₩20,579
구매하기	구매하기	구매하기

iHerb

추천기사



단독 김여정 지시에 조금했다
폭약 퍼부은 북한 '희한한 폭파'

단독 간호조무사, 마취 환자 성추행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 또 터졌다

"檢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검찰과 또 충돌

설훈 "윤석열 같은檢총장 처음
내가 윤총장이면 벌써 그만뒀다"

"文 퇴임 연설 내가 맡았으면..."
또 다시 여론 신경 끊은 진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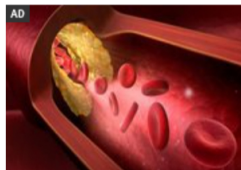
통일부, 대남전단 살포 예고 지적에
北 "무슨 낯짝, 뼈라북탄 보복할 것"

박사 학위 받지 못해 대학서 제적
'천재소년' 송유근, 항소심도 졌다

車 부품업체 '셋다운' 막는다
정부, 협력업체에 5조원 대출

주민들은 대청하고 뭘 듣는다

제출 불응 논란 여가부,
개인정보 제외한 정의연 자...



고혈압 당뇨 혈관을 짜악
뚫어주는 이것은?

여가부 지원사업 심사에
윤미향 참여 '셀프 심사' 의혹



나만 몰랐다, 실비가
1만원대라니

[단독] "윤미향이 할머니
앵벌이"...위안부 피해자 가족...



'혼란한 시기' CEO라면 반드시
취해야 할 선택

< 1 2 3 >

전체댓글 277

게시판 관리기준

[알림] 소셜 로그인으로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소셜댓글이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의견 작성을 위해 원하시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시오

등록

0/500

최근순 추천순 반대순

boks**** 2020-06-16 20:08:53 | 신고하기

0 0

진보의말을쓰고,정치적선동질로,정치적이득만추구한,위선자들..더럽고,억겨운,쓰레기들..

답글달기

comb**** 2020-06-11 10:13:59 | 신고하기

6 1

국세청보고서 양식에 모든 항목을 적을 수 없게되어 있다. 문제는 국세청 양식에 문제가 있는거지 진보단체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것 처럼 보도하는 중앙일보의 저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김경을 회계사는 기부단체를 회계 에 대해서 잘알지못하는 전문분야가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다. 중앙일보는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내어라

답글달기

hope**** 2020-06-16 14:30:40 | 신고하기

1 0

별도 양식 첨부해서 상세히 밝힐수 있다

babi**** 2020-06-13 18:43:39 | 신고하기

2 0

말이야 방구야. 단지 항목을 국세청에 적지 않아서 문제라는 게 아니잖아. 적을 수 없는 돈은 없어져도 되고 개인이 어디다 썼는지 못 밝혀도 됨?

rudi**** 2020-06-11 16:10:19 | 신고하기

10 0

회계에 문제가 없어요? 정말그렇게 생각하세요?

bhak**** 2020-06-11 09:26:04 | 신고하기

4 0

더러운 것들.

답글달기

jjh1**** 2020-06-11 07:55:51 | 신고하기

8 0

원래 운동권들이 더 음란 타락 비도덕적이지 알량한 가짜정의 외치는것도 영웅심리인뿐 지금 하는것들이 무슨 도덕과 선과 정의가 있나 자식 돈좀 해먹은것은 용서되고 자식 미국 유학 역대로 보내는 것 다 용서되지만 제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은이 처럼은 하지 마라

답글달기

dska**** 2020-06-11 07:55:10 | 신고하기

2 0

건당 10만원에서부터 70~80만원이 대부분인데 이걸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그릴하나? 예고, 한심한 놈들. 이게 언론이나, 지라시나?

답글달기

jmj7**** 2020-06-10 22:54:44 | 신고하기

15 0

박근혜때 k스포츠재단으로 돈해먹으려고 한것과 차이가 없네 소수가 먹나 때거리로 먹나정도 차이뿐? 민언련 엄청 깨끗한것 언론 필터링 해대더니 그이면 단체기본 회계는 엄청 무능력에 구리네 개실망이다 뭐문은개가 뭐문은개 지적질하는거 때려치라 nl계 술한 단체들이 느그가 때거리 힘임고 대한민국 해묵을라고 하는거 박근혜때랑 뭐가 다르냐? 오히려 더짜증나는 이윤화는 뭘까?

답글달기

dska**** 2020-06-11 07:56:29 | 신고하기

0 0

丁건훈은 내건증건 뿐잖나
"송현동 그 땅 공원과 반대"



日 뒤통 코로나앱, 위치추적도 안돼
실효성 의문 '제2 아베 마스크' 되나

불탄 "북미 비핵화 韓 창조물
트럼프, 김정은에게 낚였다"



러폭격기 美ADIZ 진입에 맞대응
美폭격기도 보란듯 러국경 비행



트럼프 "中, 경쟁국 망가뜨리려
코로나 퍼트려"--EU도 공세



코로나로 전 세계 무대 올strom
손열음 "저의 무대는 계속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정몽준 장남' 다음달 결혼한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나"



많이 본 기사

- 1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악
- 2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3 또 여권 신경 굵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4 "북은 핵 밀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5 설혼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6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7 대구 부시장직 제안받은 典 총의락 "도망길
- 8 [미리보는 오늘] 15억원 넘으면 대출
- 9 홍사덕 "비자금 수사 말라" YS 설득...97년 DJ
- 10 정청래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은

[AD] 2020년 '이 종목' 사서 물어봐라 30배..

[AD] 주식투자도 손실없는 '고정수익'이 가능...

Innovation Lab

< >



미래도시가 필요로
하는
Posted by 포스코

Branded Content

< >



교육식별정보 안전조...



경북 고속도로 50주년 ...

포토이슈



북면 쓴 멕시코 프로레슬러들, 링 대신
거리로...

댓글 많은 기사

- 1 또 여권 신경 굵는 진중권 "文 퇴임연설
- 2 설혼 "윤석열 같은 檢 총장 처음...나라면
- 3 불탄 "북미 비핵화는 韓 창조물"...트럼프,
- 4 "사실상 주가 이동 제한" 강남 한복판 12만
- 5 국회 본회의 취소...박병석 "국가비상, 여야
- 6 "북은 핵 밀고 도발하는데"...한국 핵무장론'
- 7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북·미회담 중
- 8 "유럽보단 한국"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 9 [속보] 김연철 통일장관 1년2개월만에
- 10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다...폭악 퍼부은

차이가 많은디? 그때 재벌로부터 수십억 씩 거둬 전체가 수백억이었잖아? 이젠 뭐 건당 10만원에서 70~80만원 씩 주고 일시킨 건데 이게 일감 몰아주기?

더보기 ▼

SHOPPING & LIFE



중앙일보 기자들의 **마켓스트** 공간 **1**판

오피니언

사설칼럼
만평
디지털설전
e글 중심

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외교
국방
북한

경제

경제정책
산업
금융증권
부동산
과학미래
글로벌경제
고용노동

사회

검찰·법원
교육
사건사고
복지
교통
환경
지역
건강

국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토픽월드

문화

책
공연
미술
클래식
가요
방송
영화

스포츠

야구
해외야구
축구
해외축구
농구/배구

라이프 스타일

패션
맛
럭셔리
뷰티
리빙

여행레저

국내여행
해외여행
여행뉴스
Week&

포토·영상

포토
영상

피플

사랑방
인사
부음

스페셜

중앙SUNDAY
디지털스페셜
통일무지개
더,오래
먼지알지
복지토털
Mr.밀리터리
J맛

서비스

뉴스레터
이슈패키지
트렌드 뉴스
기자
인물정보
전자판

독자 서비스

중앙멤버십
구독신청
제보
보도자료
고객센터

KOREAN AIR

SAMSUNG

HNT 하나투어리스트

중앙그룹

중앙일보 | 고객센터 | 윤리경영 | 광고 안내 | 제휴문의 | 견학신청 | 회원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 등록번호 서울 아 01013 | 등록일자 : 2009.11.2 | 발행인 : 홍정도 | 편집인 : 오병상 | 대표이사 : 조영남

JoongAng Ilbo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

축하합니다

로또 당첨 예상 번호가 도착했어요.

번호 확인하기